

MICA Cheongju Exhibition

국립현대미술관 청주
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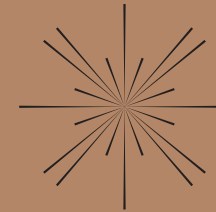
별 헤는 날: 나와 당신의 이야기

A Day for Counting Stars: The Story of You&Me

5층, 기획전시실

Special Exhibition Gallery, 5F

2018. 12. 29. — 2019. 6. 16.



별 헤는 날: 나와 당신의 이야기 A DAY FOR COUNTING STARS: THE STORY OF YOU&ME

우리는 모두 ‘별’의 후예들이다.

인간의 몸을 구성하는 기본 원소인 수소, 산소, 탄소, 질소, 칼슘 등은 지구와 우주를 구성하는 성분 원소들과 동일하다. 이는 첨단 ‘과학적’ 분석은 물론이거니와, ‘진흙을 빚어 신의 숨결을 불어넣고,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간다.’는 ‘종교적’ 신념과도 상통한다. 결국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가 ‘별’의 먼지로부터 비롯되었음을 ‘과학’과 ‘종교’에서 공통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이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렇듯 숭고한 우주의 족보를 지닌 고귀한 존재인 인간들은 고작 수천 년의 세월 동안 만들어낸 ‘문명’의 우월성을 자랑하며, 스스로의 위엄을 망각하고 편을 갈라 이전투구(泥田鬪狗) 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렇듯 치열한 생존경쟁에 목숨을 건 위기의 상황 속에서 나약한 ‘개인’은 온전히 제 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두 눈을 부릅뜨고, 주위를 살피며 한걸음씩 나아간다. 하지만, 아무리 조심한들

We are all descendants of stars.

The basic elements that make up the human body—hydrogen, oxygen, carbon, nitrogen, and calcium—are the same basic elements that make up the earth and the universe. This latest scientific analysis is in line with the religious belief that man was created out of clay and god’s breath, born from dust to return to dust. In the end, science and religion both denote that humans and all other living things originate from star dust.

Ironically, humans, noble creatures of cosmological descent, merely boast of their meager civilization over some thousand years, forget their majestic bearing, and split into factions to bicker and brawl. Thrown in a cold-blooded battlefield of survival and competition, feeble individuals keep their eyes wide

우리는 종종 깊은 수렁에 빠지거나, 어두운 숲 속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며, 때로는 천 길 낭떠러지로 굴러 떨어지곤 한다.

인간은 자신의 역량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을 대면하거나 깊은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한없이 나약해질 때 비로소, 고개를 들어 하늘을 향해 시선을 돌린다. 자신 앞에 끝없이 펼쳐진 광활한 하늘과 암흑 우주에 펼쳐진 반짝이는 별들의 향연을 바라보며 비로소 존재의 근원에 대한 깨달음과 인간 욕망의 덧없음을 자각하고 거대하고 숭고한 존재 앞에 무릎을 꿇는다. 인간의 문명으로 여전히 상상 불가한 미지의 영역인 광활한 우주를 메우고 있는 수 천 억 개의 별들을 바라보며, 나의 삶을 성찰하고 돌아보게 된다.

현대의 예술가들은 하늘의 별과 같이 소중하고 아름다운 존재인 ‘너와 나’에 대한 애정과 세심한 관찰을 바탕으로 우리의 존재가 우연히 만들어진 하찮은 존재가 아님을, 거대한 우주와 본질을 공유한 존재이자 우주의 한 부분으로 돌아갈 운명을 지닌 고귀하고 지적인 존재임을 드러낸다. 이번 전시에 출품된 작품들은 특정한 관객의 감상을 위한 ‘예술’이 아니며, 서로 부대끼며 사랑하는 우리 이웃들의 소중한 ‘이야기’이다. 이들의 작품은 광폭하게 회전하는 거대한 생존의 수레바퀴에 매달려 앞만 보며 내달리는 우리들의 편협한 시각을 넓혀주고, 팽팽하게 당겨진 신경을 이완시키며, 우리들의 소소한 일상에서 삶의 소중한 가치를 발견하도록 이끈다. 작고, 미약한 우리의 존재가 암흑 속 우주를 밝히는 작은 별처럼 아름답게 빛나는 존재임을 다시금 깨닫게 해준다.

open and wary of possible threats, taking cautious steps to stay alive. Nevertheless, no matter how much caution we take, we often sink into a pit, get lost in the dark woods, or sometimes, fall straight down a bottomless cliff.

Only in the face of a situation beyond their capacity do infinitely weak humans raise their heads and eyes to the heavens in despair. They look into the infinite sky stretched above them, the feast of flickering stars spread across the dark universe, and they finally recognize their origin, acknowledge the futility of human desire, and kneel before the magnificent grandeur. Looking at the billions of stars lighting the vast universe, we realize human civilization has still much more to fathom and begin to reflect on our lives.

Contemporary artists observe other people as they would stars in the sky to understand the essence of human existence and to remind themselves that our existence is not a mere coincidence, that we share the essence of the infinite cosmos, and that we are exalted and intelligent beings who will one day return to a cosmic element. The works presented in this exhibition are not dedicated to a certain group—they are coveted stories of people we run into and love. Selected artists unfold these stories through a variety of media including painting, photography, sculpture, and video. Their works expand our narrow field of vision beyond the spinning

《별 헤는 날: 나와 당신의 이야기》는 회화, 사진, 조각, 영상 설치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작은 일상의 이야기에 주목하고, 그 속에 감춰진 보석같이 반짝이는 소중한 순간을 드러내는 15작가의 작품 23점으로 구성되어있다. 전시 출품작들은 국립현대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는 8,100여점의 한국현대미술 소장품 중에서 주제에 맞게 엄선된 대표작들이다. 전시장을 찾은 관객들은 친숙한 우리 이웃들의 이야기를 통해 막연히 난해하고 어렵게만 느껴졌던 ‘현대미술’과 좀 더 가까워진 느낌을 갖게 될 것이다. 이번 전시는 국내외 명품 현대미술의 수장과 보존의 메카이자 다양하고 흥미로운 전시를 통해 충북 및 청주 지역 관객들에게 사랑받는 ‘국립현대미술관 청주’의 비전을 제시하는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다.

wheel of survival, loosen our tightly strained tension and nervousness, and guide us to discover the meaning of life within mundane trivialities. They make us realize yet again that, as insignificant and minute as our existence may be, we are one and the same with the stars that light up the universe.

Comprised of 23 works by 15 artists including paintings, photos, sculptures, videos, and installations, *A Day for Counting Stars: The Story of You and Me* illuminates the trivial and quotidian stories of our lives. These works have been carefully selected among the 8,100 pieces in the MMCA collection to serve the theme of the exhibition. Through the familiar stories of people around us, the audience will be able to relate to the notoriously vague and abstruse world of contemporary art. This exhibition will be the first step towards actualizing the vision of the MMCA Cheongju, which aims to be a mecca, a collector and preserver of topnotch international contemporary artworks, as well as a museum beloved by the local audience of Chungcheongbuk-do and Cheongju, delivering diverse and interesting exhibitions.

강익중
Kang Ikjoong
1960

〈삼라만상〉
1984~2014
패널에 혼합재료, 크롬도금 청동 부처상
패널 각 50×50×(400)cm
불상 92×33×33cm
국립현대미술관 소장

Sam-ra-man-sang
Mixed media on panel,
Chrome-plated copper on
a Buddha Statue
MMCA Collection



청주 출신 작가 강익중^{1960~}은 뉴욕에 거주하며 국제적으로 왕성한 작품 활동을 보여주고 있다. 유학 생활 초기에 간편하게 주머니에 넣고 다니며 지하철 안에서 작업한 3인치^{7.6×7.6cm} 회화는 그의 트레이드마크가 되었다. 열차 안의 군상들, 일상의 단편들 영어단어 연습 등 일상의 순간순간이 초소형 캔버스 안에 다양한 문자와 기호, 그림으로 기록되었다. 강익중은 1997 베니스 비엔날레에 한국관 대표작가로 참여하여 특별상을 수상했다. 강익중의 3인치 회화는 이후 수많은 대중들이 참여하는 대규모 설치 작업으로 확장되어 전세계에서 선보이고 있다.

〈삼라만상〉^{1984~2014}은 일 만 점에 이르는 작은 캔버스들이 단위별로 모여 하나의 거대한 세상을 만들어내고 있는 작품이다. 가로, 세로 3인치의 작은 이미지들은 서로 연결되고 화합하면서 거대한 우주 즉, ‘삼라만상’의 세계를

구현해내고 있다. 사방벽에 설치된 작품의 중심부에는 일만점의 캔버스가 발하는 시끌벅적한 이미지의 향연과 무관한듯 무심하게 정좌한 부처상이 위치하고 있다. 유리처럼 주변 사물을 반영하는 크롬 도금된 ‘반가사유상’의 표면에는 벽면에 설치된 작품들과 이를 감상하는 관객들이 투영되면서 결과적으로 있으면서도 없는 ‘색즉시공, 공즉시색’의 경지를 보여주고 있다.

Kang Ikjoong^{1960~}, originally from Cheongju and currently based in New York, is actively showing works in the international art scene. The three-inch square^{7.6×7.6cm} pocket-sized paintings produced on the subway during the first years of his study abroad became Kang's trademark. From sketches of people on the trains to English vocabulary notes, the small canvases are filled with moments, pictures, texts, and symbols of Kang's everyday life. Kang participated in the 1997 Venice Biennale as a representative artist of Korea and won the Special Merit Prize. His three-inch paintings eventually developed into a large-scale installation that encourages public participation to be shown around the world.

Sam-ra-man-sang^{1984~2014} is a work comprise of 10,000 small canvases that make up an entire universe. Small three-inch square images interact and harmonize with one another to construct a massive universe harboring all creations. At the center of a circular wall stretching in all directions, there is a sculpture of Buddha in meditation, seemingly removed from the chaotic clash of the 10,000 images surrounding it. The chrome plating on the surface of the thinking Buddha reflects the surrounding wall and the audience like a mirror, preaching the Buddhist lesson that all matters, even when they seem to have disappeared from sight, are transformed into energy to remain within the universe.

삼라만상 Sam-ra-man-sang

김수자
Kim Sooja
1957

〈바늘여인〉
1999~2001
8 채널 비디오, 컬러, 무음
각 6분 33초
국립현대미술관 소장

A Needle Woman
8channel video, color, silent
Each 6min 33sec
MMCA Collection

파리와 뉴욕을 중심으로 세계적인 미술관과 비엔날레에서 작품을 발표하고 있는 김수자^{1957~}는 한국의 전통적인 보자기와 바느질을 소재로 한 영상 설치 작업과 소리와 빛을 이용한 장소특정적 설치 작품으로 국제적인 명성을 얻었다.

2015년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작가 및 2016년 국립현대미술관 현대차 시리즈 작가로 선정되어 특유의 명상적이며, 사유적인 대형 설치작품을 발표했다.

〈바늘여인〉^{1999~2001}은 작가가 도쿄, 상하이, 델리, 뉴욕, 멕시코 시티, 카이로, 라고스, 런던 등 여덟 도시를 방문하여 촬영한 영상이다. 김수자는 천과 천을 이어주는 ‘바늘’ 처럼, 수많은 인파들 틈에서 미동도 하지 않고 곳곳히 서있다. 작가가 주요한 모티브로 사용했던 ‘보따리’와 마찬가지로 ‘바늘’ 역시 가족과 개인, 사랑과 이별, 정착과 이주, 안정과 불안 등을 상징적으로 암시하는 소재다. 김수자는 자신의 몸을 이용하여, 마치 천과 천을 연결하는 바늘처럼 경계없는 시공간 속에서 사람과 사람간의 연결 시키는 ‘인간바늘’의 역할을 담당한다. 이 작품은 세계의 도시 속 익명의 존재들을 감싸 안으며 동시대를 함께 통과하는 인간에 대한 작가의 깊고 따뜻한 애정을 보여주고 있다.



Kim Sooja^{1957~}, a Paris and New York-based artist exhibited in museums and biennales around the world, gained global recognition through video installations incorporating Korean traditional cloth and needles and site-specific installations using sound and light. She was selected to participate in the 2015 Venice Biennale as an artist representing Korea as well as in the MMCA Hyundai Motor Series 2016, showcasing her unique meditative and pensive large-scale installations.

A Needle Woman^{1999~2001} is a multi-channel video work comprised of records of Kim Sooja's visits to Tokyo, Shanghai, Deli, New York, Mexico City, Cairo, Lagos, and London. Like a needle that

sews cloth together, Kim Stands still in the midst of the bustling crowd in each city. Just like “bundles,” one of her major themes, a “needle” signifies family and individuality, love and separation, settlement and migration, stability and instability. Using her own body, Kim Sooja plays the role of a “human needle” that creates a link between people and other people, disintegrating the space and time between them. By embracing the anonymous individuals living in the cities around the world, *A Needle Woman* portrays the artist's deep and warm affection towards the people living in her contemporary time.

바늘여인 A Needle Woman

정연두

Jung Yeondoo

1969

〈내사랑 지니〉

2001~2005

싱글 채널 비디오, 무음

국립현대미술관 소장

Bewitched I

Single channel video, silent

MMCA Collection



평범한 이웃들의 '꿈'을 소재로 사진, 영상, 설치, 공연 등 경계를 가리지않는 다양한 형식으로 구현해내는 미디어 아티스트 정연두¹⁹⁶⁹⁻는 현실과 비현실, 실재와 가상의 경계를 자유롭게 뛰어넘는 마술사처럼 보인다. 그의 작품들은 관객들의 얼굴에 파스한 미소를 번지게 하는 신기한 마술과도 같다. 정연두는 2007년 국립현대미술관 올해의 작가로 선정되었으며, 국내외 미술관과 주요 비엔날레 등에서 왕성하게 작품을 발표하고 있다.

〈내사랑 지니〉²⁰⁰¹⁻²⁰⁰⁵는 정연두의 초기 대표작 중 하나이다. 작가는 다양한 나이와 국적을 지닌 평범한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꿈'에 대해 질문하고, 그들이 상상하는 '꿈'을 현실로 실현시킨다. 작가는 인물들의 현재 상황을 보여주는 모습을 촬영하고, '꿈'이 이루어진 후 극적으로 변화된 모습을 정교하게 재현된 공간 속에서 촬영한 후에 이를 함께 전시했다. 비록 이러한 과정은 실제로 꿈이 이루어 주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이며 신기루 같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작가와 모델들은 적극적이며, 즐겁게 작품을 완성하게 된다. 참가자들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꿈'의 실현에 대한 행복한 상상을 온 몸(?)으로 체험하게 된다. 영상 속에는 총 20명의 다양한 인물들이 각자의 아름다운 '꿈'을 이루는 장면이 투영되고 있다.

내사랑 지니 Bewitched I



Like a magician who crosses the boundaries of the real and unreal, and the actual and virtual, Jung Yeondoo¹⁹⁶⁹⁻ makes his neighbors' dreams come true through various media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photos, videos, installation, and performances. His works magically light up a smile on the viewers' faces. Selected by the MMCA as the *Artist of the Year 2007*, Jung Yeondoo continues to show works in major international museums and biennales.

Bewitched I ²⁰⁰¹⁻²⁰⁰⁵ is one of Jung Yeondoo's major early works. Jung asks everyday people of various ages and nationalities about their dreams and turns them into reality. He films the people in their quotidian state, then films them in a dramatically changed setting of their dream-come-true moments, juxtaposing the two images in a meticulously designed space. Though the project only serves as a temporary mirage and doesn't actually realize anyone's dream, both the artist and the models proactively and merrily engage in the process, through which the participants are able to experience the joyous moment when a dream is materialized. The video features a total of 20 individuals whose desires and dreams are realized.

정연두
Jung Yeondoo
1969

〈상록타워〉
2001
싱글 채널 비디오
국립현대미술관 소장

Evergreen Tower
Single channel video
MMCA Collection

평범한 이웃들의 ‘꿈’을 소재로 사진, 영상, 설치, 공연 등 경계를 가리지않는 다양한 형식으로 구현해내는 미디어 아티스트 정연두¹⁹⁶⁹⁻는 현실과 비현실, 실재와 가상의 경계를 자유롭게 뛰어넘는 마술사처럼 보인다. 그의 작품들은 관객들의 얼굴에 따스한 미소를 번지게 하는 신기한 마술과도 같다. 정연두는 2007년 국립현대미술관 올해의 작가로 선정되었으며, 국내외 미술관과 주요 비엔날레 등에서 왕성하게 작품을 발표하고 있다.

〈상록타워〉²⁰⁰¹는 서울시 광진구 광장동에 있는 ‘상록타워’라는 중산층 아파트를 소재로 한 작품이다. 작가는 상록타워에 거주하는 가정을 일일이 방문하여 가족들을 인터뷰하고 사진을 촬영했다. 현대사회의 대표적인 거주 형태인 아파트 공간 속에서 사람들은 대부분 유사한 인테리어와 동선을 공유하며, 비슷해보이는 삶의 패턴을 보여준다. 하지만 조금만 자세히 들여다 보면, 획일적인 공간 속에 거주하는 가족들의 모습은 천차만별임을 알 수 있다. 이들은 저마다 다른 꿈을 꾸고 있으며, 각각의 고유한 삶의 형태를 공간에 투영시키며 살아가고 있다. 외양적으로 우리의 삶은 누구나 비슷하게 마련이지만, 남과 다른 나만의 삶에 대한 욕구는 끊임없이 드러나게 마련이다. 영상 속에는 총 32가구의 가족들이 유사하지만, 조금씩 다른 모습으로 등장한다.



Like a magician who crosses the boundaries of the real and unreal, and the actual and virtual, Jung Yeondoo¹⁹⁶⁹⁻ makes his neighbors' dreams come true through various media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photos, videos, installation, and performances. His works magically light up a smile on the viewers' faces. Selected by the MMCA as the *Artist of the Year 2007*, Jung Yeondoo continues to show works in major international museums and biennales.

*Evergreen Tower*²⁰⁰¹ is a series of photographs capturing families living in Evergreen Tower, a middle-class apartment building in Gwangjang-dong, Seoul. Jung Yeondoo visited every household in the building to interview

the families and take their pictures. Looking at the apartment spaces, the quintessential form of residence in modern Korea, the families seem to have chosen similar interior layouts, moving within similar ranges and living similar patterns of life. But a closer observation proves that the families, though living in uniform spaces, are distinct and different, that they project different dreams, desires, and lifestyles onto their spaces. While the families seem alike at a glance, it's evident that they lead and desire unique lifestyles. The video features a total of 32 similar yet distinct families.

원성원
Won Seoungwon
1972

〈드림룸-배경〉
2004(2017)
C-프린트
70×100cm
국립현대미술관 소장

Dreamroom-Beikyoung
C-print
MMCA Collection

원성원^{1972~}은 친구와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건져 올린 다양한 이야기들에 작가의 상상력을 더하여 시공의 경계가 사라진 상상의 이미지를 구현한 사진 작업으로 잘 알려져있다. 작가는 작업 초기 자신의 친구들이 원하는 이상적인 공간을 사진 콜라주 작품으로 선보였다. 다양한 이미지를 촬영하고 조합 방식을 통해 작가는 자신과 지인들의 이야기를 다양한 방식으로 확장시켰다. 작가는 사진 촬영을 위해 여러 지역을 직접 찾다니며 수많은 풍경과 다양한 소재들을 세밀하게 촬영한다. 이렇게 촬영된 수 천 장의 고해상도 사진들은 장시간의 꼼꼼한 컴퓨터 작업을 통해 지상에는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풍경으로 재탄생 된다.

〈드림룸〉은 작가의 독일 유학시절 시작한 첫 번째 사진 콜라주 연작이다. 사진 속의 공간은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이미지의 조합으로 가득 차 있다. 그의 작품 속에는 각박한 현실에서 탈출하기 원하는 우리 주변 사람들의 소박한, 혹은 불가능한 꿈이 실현되는 놀랍고 유머러스한 순간이 담겨있다. 사진의 오른쪽 중간에 등장하는 수영하는 인물 '배경'은 미디어 작가다. 조용하고 내성적인 성격의 이 인물은 '물고기'를 좋아한다. 첨단 미디어로 작품을 제작하는 '배경'에게 고요한 물 속은 피난처 같은 곳이다. 비록 수영을 하지는 못하지만, 물 속을 부유하며 물고기와와 정적인 교류를 하고 싶은 그에게 거대한 수족관은 가장 이상적인 공간일 것이다. 산호초와 물고기를 사이로 유영하는 '배경'의 모습은 무척이나 행복하고 자유스러워 보인다.



Won Seoungwon^{1972~} is known for photo works containing various stories of her friends and acquaintances embellished with artistic imagination. She creates imaginary images that deconstruct the notion of time and space, her early photo collages depicting ideal hang-outs she fabricated for her friends. By photographing and combining different images, Won further explores her acquaintances' stories. She personally visits numerous sites and photographs detailed pictures of landscapes and other necessary themes for her work. After time-consuming and meticulous computer work, the thousands of high-resolution picture parts are collaged together to create a virtual landscape that's impossible in the real world.

Dreamroom is a series of photo collages produced at the time of Won Seoungwon's study abroad in Germany. Each space inside the frame is filled with an unrealistic combination of images. With elements of surprise and humor, the collages materialize the humble or impossible dreams of her friends who want to escape the cold reality. Beikyoung, the swimmer in the center right, is a media artist, a quiet and introverted character who loves fish. For Beikyoung, who is invested in advanced-media works most of the time, the underwater world is a serene refuge. Although he's not a good swimmer, Won thought that a huge aquarium would be ideal for him to just immerse himself in water and enjoy the quiet company of the fish. Beikyoung seems immensely content and free, floating around among the coral and fish.

드림룸-배경 Dreamroom-Beikyoung

원성원
Won Seoungwon
1972

〈드림룸-티나〉
2000(2017)
C-프린트
70×100cm
국립현대미술관 소장

Dreamroom-Tina
C-print
MMCA Collection

원성원^{1972~}은 친구와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건져 올린 다양한 이야기들에 작가의 상상력을 더하여 시공의 경계가 사라진 상상의 이미지를 구현한 사진 작업으로 잘 알려져있다. 작가는 작업 초기 자신의 친구들이 원하는 이상적인 공간을 사진 콜라주 작품으로 선보였다. 다양한 이미지를 촬영하고 조합 방식을 통해 작가는 자신과 지인들의 이야기를 다양한 방식으로 확장시켰다. 작가는 사진 촬영을 위해 여러 지역을 직접 찾아다니며 수많은 풍경과 다양한 소재들을 세밀하게 촬영한다. 이렇게 촬영된 수 천 장의 고해상도 사진들은 장시간의 꼼꼼한 컴퓨터 작업을 통해 지상에는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풍경으로 재탄생 된다.

〈드림룸〉은 작가의 독일 유학시절 시작한 첫 번째 사진 콜라주 연작이다. 사진 속의 공간은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이미지의 조합으로 가득 차 있다. 그의 작품 속에는 각박한 현실에서 탈출하기 원하는 우리 주변 사람들의 소박한, 혹은 불가능한 꿈이 실현되는 놀랍고 유머러스한 순간이 담겨있다. '티나'는 쓰레기 더미로 조각을 하는 스위스 설치 작가이다. 그녀는 '늪'에서 아침을 먹고, 세면을 하고 싶다고 고백했다. 작가는 적당한 '늪' 풍경을 촬영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고, 결국 근사한 장소를 발견하여 촬영할 수 있었다. 작가는 티나의 텅 빈 방에 '늪'을 만들어 넣었다. 머리에 수건을 두르고 이를 닦는 방주인의 모습은 꿈이 이루어진 것에 꽤나 만족스러워하는 듯 보인다.



Won Seoungwon^{1972~} is known for photo works containing various stories of her friends and acquaintances embellished with artistic imagination. She creates imaginary images that deconstruct the notion of time and space, her early photo collages depicting ideal hang-outs she fabricated for her friends. By photographing and combining different images, Won further explores her acquaintances' stories. She personally visits numerous sites and photographs detailed pictures of landscapes and other necessary themes for her work. After time-consuming and meticulous computer work, the thousands of high-resolution picture parts are collaged together to create a virtual landscape that's impossible in the real world.

Dreamroom is a series of photo collages produced at the time of Won Seoungwon's study abroad in Germany. Each space inside the frame is filled with an unrealistic combination of images. With elements of surprise and humor, the collages materialize the humble or impossible dreams of her friends who want to escape the cold reality. Tina is an installation artist from Switzerland who makes sculptures out of mounds of trash. She told Won that she dreams of waking and washing up in a swamp, and to virtually realize this dream, Won went on a search for an appropriate landscape to photograph, eventually found just the right place, and turned Tina's empty room into a swamp. Tina, with a towel wrapped around her head, seems quite satisfied with brushing her teeth in a swamp.

드림룸-티나

Dreamroom-Tin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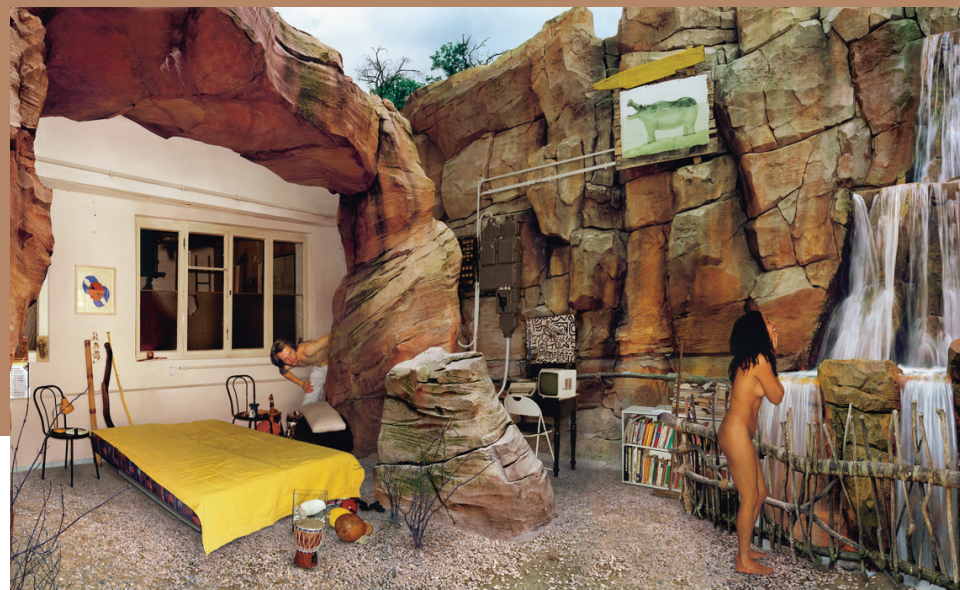
원성원
Won Seoungwon
1972

〈드림룸-엘리아나, 파비앙〉
2001(2017)
C-프린트
70×100cm
국립현대미술관 소장

Dreamroom—Eliane and Fabian
C-print
MMCA Collection

원성원^{1972~}은 친구와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건져 올린 다양한 이야기들에 작가의 상상력을 더하여 시공의 경계가 사라진 상상의 이미지를 구현한 사진 작업으로 잘 알려져있다. 작가는 작업 초기 자신의 친구들이 원하는 이상적인 공간을 사진 콜라주 작품으로 선보였다. 다양한 이미지를 촬영하고 조합 방식을 통해 작가는 자신과 지인들의 이야기를 다양한 방식으로 확장시켰다. 작가는 사진 촬영을 위해 여러 지역을 직접 찾아다니며 수많은 풍경과 다양한 소재들을 세밀하게 촬영한다. 이렇게 촬영된 수 천 장의 고해상도 사진들은 장시간의 꼼꼼한 컴퓨터 작업을 통해 지상에는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풍경으로 재탄생 된다.

〈드림룸〉은 작가의 독일 유학시절 시작한 첫 번째 사진 콜라주 연작이다. 사진 속의 공간은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이미지의 조합으로 가득 차 있다. 그의 작품 속에는 각박한 현실에서 탈출하기 원하는 우리 주변 사람들의 소박한, 혹은 불가능한 꿈이 실현되는 놀랍고 유머러스한 순간이 담겨있다. ‘엘리아나’와 ‘파비앙’은 퍼포먼스 작가들이다. 꾸미지 않은 인간의 본성에 충실한 이 커플은 거친 바위와 시원한 폭포가 있는 자연 속에 살고 있는 아담과 하와처럼 발가벗은 모습으로 등장한다. 이 커플은 몇 년 뒤 호주의 사막지대로 이민을 떠나 자연 속에서 살고 있다고 한다. 이들은 유일하게 ‘드림룸’을 실제로 실현시킨 주인공이 되었다.



Won Seoungwon^{1972~} is known for photo works containing various stories of her friends and acquaintances embellished with artistic imagination. She creates imaginary images that deconstruct the notion of time and space, her early photo collages depicting ideal hang-outs she fabricated for her friends. By photographing and combining different images, Won further explores her acquaintances' stories. She personally visits numerous sites and photographs detailed pictures of landscapes and other necessary themes for her work. After time-consuming and meticulous computer work, the thousands of high-resolution picture parts are collaged together to create a virtual landscape that's impossible in the real world.

Dreamroom is a series of photo collages produced at the time of Won Seoungwon's study abroad in Germany. Each space inside the frame is filled with an unrealistic combination of images. With elements of surprise and humor, the collages materialize the humble or impossible dreams of her friends who want to escape the cold reality. Eliane and Fabian are performance artists. The couple, who like to stay true to unaffected human nature, appear naked like Adam and Eve, living amongst rugged rocks and a refreshing waterfall. A few years after Won Seoungwon finished this piece, the couple actually moved to a desert in Australia and are currently living in nature. These two are the only subjects who have actualized their Dreamroom so far.

드림룸-엘리아나, 파비앙

Dreamroom—Eliane and Fabian

김옥선
Kim Oksun
1967

〈해피투게더-옥선과 랄프〉
2002
디지털 크로모제닉 프린트
96×114cm
국립현대미술관 소장

Happy Together—Oksun and Ralf
Digital chromogenic print
MMCA Collection



김옥선¹⁹⁶⁷⁻은 여성, 다문화, 주한 외국인 등 보이지않는 일상의 그늘 속에 가려져 있던 이웃들의 모습을 담담한 시선으로 포착한 사진 연작을 통해 주목받아왔다. 〈해피 투게더〉 연작은 한국사회에서 증가하고 있는 다문화 가정의 모습을 그들의 사적인 공간에서 촬영한 사진이다. 작가를 포함하여,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국제결혼 부부의 일상적인 모습이 등장하는 이 연작은 성별과 인종, 종교, 문화적 차이 등 ‘다름’에 대한 다양한 편견이 여전히 존재하는 한국 사회의 보이지 않는 차별과 거북한 시선 등의 문화, 심리적인 문제들을 드러내고 있다.

〈해피투게더-옥선과 랄프〉²⁰⁰²에서 ‘옥선’은 작가 자신이며 ‘랄프’와 결혼하여 제주도에 살고 있다. 랄프는 독일에서 영화를 전공했으며 제주대 독일학과에 재직하다가 서귀포로 이주하여 다이빙 숍을 운영하고 있다. 부부의 딸 한나는 2002년 한국 국적을 취득한 후 2003년에는 서귀포에 있는 초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었다. 작가 자신의 경험과도 연관되는 이 작품에서 각자의 의자에 몸을 맡기고 있는 부부는 낯설고 불안정한 모습으로 표현된다. 김옥선은 이런 모습을 통해서 가장 친밀한 사이인 부부간의 소통에도 사회문화적, 언어적 차이에 의해 미세하게 어긋나는 상황이 있음을 건조한 시선으로 포착하고 있다.

Kim Oksun¹⁹⁶⁷⁻ is recognized for her hardboiled photo series spotlighting socially unheeded people in the shadows of everyday life such as women, multicultural families, and expatriates in Korea. Happy Together is a series of photographs taken inside the private homes of multicultural families, an increasing type of family in Korea. The series, capturing mundane moments of couples in interracial marriages including the artist herself, reflects on the Korean society in which various invisible discriminations and prejudices against gender, race, religion, and cultural differences still exist, while also scrutinizing cultural and psychological tension.

*Happy Together—Oksun and Ralf*²⁰⁰² is a photograph of the artist herself and her husband Ralf, who live on Jeju Island. Ralf majored in film in Germany, went on to teach at Jeju National University Department of German Studies, then moved to Seoguiipo-si to run a diving shop. Their daughter Hanna was able to enter elementary school in Seogwipo-si in 2003 after acquiring Korean nationality in 2002. In this autobiographical piece, Oksun and Ralf are sitting and leaning on their own respective chairs with a hint of estrangement and instability. Through this sense of tension, Kim Oksun narrates with a dry sentiment that even the most intimate communication between a husband and a wife can stray due to social and cultural differences.

해피투게더-옥선과 랄프

Happy Together—Oksun and Ralf

김옥선
Kim Oksun
1967

〈해피투게더-미련과 슈테판〉
2002
디지털 크로모제닉 프린트
96×114cm
국립현대미술관 소장

Happy Together-Miryun and Stephan
Digital chromogenic print
MMCA Collection



김옥선¹⁹⁶⁷-은 여성, 다문화, 주한 외국인 등 보이지않는 일상의 그늘 속에 가려져 있던 이웃들의 모습을 담담한 시선으로 포착한 사진 연작을 통해 주목받아왔다. 〈해피 투게더〉 연작은 한국사회에서 증가하고 있는 다문화 가정의 모습을 그들의 사적인 공간에서 촬영한 사진이다. 작가를 포함하여,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국제결혼 부부의 일상적인 모습이 등장하는 이 연작은 성별과 인종, 종교, 문화적 차이 등 ‘다름’에 대한 다양한 편견이 여전히 존재하는 한국 사회의 보이지 않는 차별과 거북한 시선 등의 문화, 심리적인 문제들을 드러내고 있다.

〈해피투게더-미련과 슈테판〉²⁰⁰²에서 에서 ‘미련’은 한 회사의 중역이며 ‘슈테판’과 부산에서 만나 결혼하여 현재 제주도에 살고 있다. 손재주가 많은 슈테판은 지멘스라는 독일회사의 엔지니어로 근무했던 지난 7년간 그들이 살 집을 직접 지었다. 또한 그는 제주 바다에서 서핑을 즐기고, 집에서는 주로 영어를 사용하여 자신의 모국어인 독일을 많이 잊었다고 한다. 한편 미련은 초등학교 딸이 앞으로 어떤 교육을 받아야 할지 고민 중이다. 작품 속 부부는 평범해 보이지만, 각자의 공간에 분리되어 포즈를 취하고 있는 모습 속에서 보이지 않는 거리와 불안정한 모습이 감지된다. 김옥선은 이런 모습을 통해서 가장 친밀한 사이인 남편과 아내, 그리고 자식간의 소통이 사회문화적, 언어적 차이에 의해 미세하게 어긋나는 상황을 건조한 시선으로 드러내고 있다.

Kim Oksun¹⁹⁶⁷- is recognized for her hardboiled photo series spotlighting socially unheeded people in the shadows of everyday life such as women, multicultural families, and expatriates in Korea. Happy Together is a series of photographs taken inside the private homes of multicultural families, an increasing type of family in Korea. The series, capturing mundane moments of couples in interracial marriages including the artist herself, reflects on the Korean society in which various invisible discriminations and prejudices against gender, race, religion, and cultural differences still exist, while also scrutinizing cultural and psychological tension.

Miryun, the subject of *Happy Together—Miryun and Stephan*²⁰⁰² is a company executive who met Stephan in Busan, got married, and now lives on Jeju Island. Stephan, a former engineer at a German company called Siemens, is a talented craftsman who has hand-built their own home over the past seven years. He enjoys surfing in the Jeju seas, mostly speaks in English at home, and claims to have forgotten much of German, his native language. Miryun is trying to decide what kind of education would be best for their elementary school daughter. The couple in the picture seems ordinary, but their distant stance and body language suggest invisible remoteness and disparity. Through this piece, Kim Oksun offers an aloof observation of the small discrepancies in the intimate communication among family members caused by social and cultural differences.

해피투게더-미련과 슈테판

Happy Together-Miryun and Stephan



〈연이와 정윤〉 Yeon-i and Jeong-yun



〈태화와 회지〉 Tae-hwa and Hui-ji



〈상엽과 한솔〉 Sang-yeop and Han-sol



〈태정과 선호〉 Tae-jeong and Sun-ho

이선민¹⁹⁶⁸⁻은 부모와 자식간의 외형적, 문화적 유사성을 소재로 한 〈트윈스〉연작과 남성중심적이며 가부장적인 한국의 전통적인 가족 제도 속 여성의 위치를 보여주는 〈여자의 집〉연작, 그리고 한국 남자와 결혼한 동남아 여인들의 일상을 담아낸 〈대륙을 횡단하는 여성들〉연작 등 우리 주변의 평범한 이웃들을 모습을 세심한 시선으로 포착한 사진연작을 꾸준히 발표해왔다. 〈트윈스〉연작은 실제 쌍둥이를 찍은 사진이 아니라, 혈연으로 연결된 ‘엄마와 딸’ 그리고 ‘아빠와 아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진연작이다. 이들은 혈연이라는 생물학적인 유사성을 넘어 사회, 문화, 경제적으로 비슷한 삶의 패턴을 보여준다. 부모와 자식의 모습은 생물학적 유전자의 공유와 함께 다양한 방식으로 자신들의 삶의 형태를 연결시키는 ‘후천적 쌍둥이’라고 할 수 있다.

〈연이와 정윤〉²⁰⁰⁸, 〈태화와 회지〉²⁰⁰⁸는 아이의 방을 배경으로 엄마와 딸의 모습을 〈상엽과 한솔〉²⁰⁰⁸, 〈태정과 산호〉²⁰⁰⁹는 야외에서 취미 활동을 함께하는 아빠와 아들의 모습을 촬영한 사진이다. 실내외를 배경으로 포즈를 취하고 있는 인물들은 일상의 자연스러운 스냅사진과는 달리 어딘지 모르게 경직되고 전형적인 모습처럼 보인다. 작가는 모델들의 의상과 포즈를 정하고 세밀하게 조정된 조명을 통해 마치 ‘모녀’ 혹은 ‘부자’ 관계의 전형성을 보여주는 ‘사진 도감’처럼 연출된 사진을 제시하고 있다. 이선민은 이들의 모습을 통해 단순한 혈연적 연결을 넘어서 취향과 취미의 공유를 통해 형성되는 ‘후천적 쌍둥이’의 사회학적 의미까지 드러내고 있다.

Lee Sunmin¹⁹⁶⁸⁻ has consistently produced sharp analyses of the common people and their lives, such as in her *Twins* series, which examines visible and cultural similarities between a parent and a child, *The Woman's House* series shedding light on the status of women within Korea's traditional male-oriented, patriarchal family system, and the *Translocating Women* series capturing everyday lives of Southeast Asian women married to Korean men.

Instead of capturing actual twins, the *Twins* series depicts blood-related mothers and daughters or fathers and sons. Beyond biological similarities, the twins reflect similarities on social, cultural, and economical levels rooted in similar lifestyles. The parents and their children can be described as “postnatal twins” who not only share biological genes but also share links that connect them in various aspects of

everyday life. They show physical similarities as well as congruities in dress code as a result of sharing a lifestyle. *Yeon-i and Jeong-yun*²⁰⁰⁸ and *Tae-hwa and Hui-ji*²⁰⁰⁸ are portraits of mothers and daughters taken in the daughters' rooms. *Sang-yeop and Han-sol*²⁰⁰⁸ and *Tae-jeong and Sun-ho*²⁰⁰⁹ are portraits of fathers and sons engaging in outdoor activities together. Unlike natural shots of everyday life, the characters posing in the pictures, whether indoors or outdoors, all look rather rigid and standardized. By capturing the models in perfect outfits and poses, under carefully set-up lighting, Lee Sunmin presents an “illustrated guide” to a typical family portrait. Through these images, Lee explores the sociological meaning of “postnatal twins,” relationships formed not just by blood but also through sharing of preferences and hobbies.

트윈스 Twins series



러시아 사실주의 회화의 전통으로 유명한 국립레핀미술학교 졸업한 김상우^{1972~}는 고전회화풍의 극사실적인 인물화 작업으로 잘 알려져 있다. “사랑하고, 미워하고, 감사하고, 후회하고...사람에 대한 기억, 그것은 나에게 그림을 그리라 한다.”고 말하는 김상우는 특유의 사실주의적 화풍으로 살아있는 듯 생생한 모습의 인물들을 화면 속에 재현한다.

〈세대〉²⁰⁰³는 세로형 캔버스에 다양한 연령대의 인물들을 한 명씩 그려 넣은 총 10점의 작품으로 구성되어있다. 고전적인 사실주의 인물화처럼 정교한 테크닉으로 묘사된 각각의 인물들은 마치 실제 인물을 직접 대면하는 듯 현장감이 느껴진다. 취학 전의 개구쟁이 꼬마에서 초·중·고등학생, 여대생, 성인 여성, 회사원, 노인에 이르기까지 각각의 인물들은 어느 하나 소홀함 없이 각자의 개성을 간직 모습으로 묘사되어있다. 무작위적으로 채집된 표본처럼 보이는 각 인물들은 편안하고 일상적인 표정과 포즈로 인해 우리 주변에 언제나 존재하는 이웃들처럼 자연스러워보인다. 세월의 흐름에 따라 변해가는 실제 인물들과는 달리, 그의 그림 속 이미지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생명력을 부여받은 듯 생생하게 다가온다.



Keem Sangwoo^{1972~}, a graduate of the Imperial Academy of Arts, famous for the Russian Realist painting tradition, is well-known for his hyperrealistic portraits using classic painting techniques. Keem, who claims that “Memories of people—loving, hating, grateful and regretful memories—tell (him) to paint,” creates vivid, life-like images of people using his unique Realist techniques.

*Generation*²⁰⁰³ is comprised of 10 vertical portraits depicting people of various ages. The figures, each rendered through elaborate techniques like classic Realist portraits, feel like they’re alive and standing face-to-face with the viewer. From a pre-school rascal, a middle school student, a high school student, and a university student, to an adult,

an office worker, and a senior citizen, each figure is portrayed in immaculate detail to reflect their personality and character. The random sample of individuals with effortless facial expressions and mundane poses look natural, like common passersby or neighbors. Unlike the actual subjects of the paintings, who are living their real lives and evolving with time, the figures in the portrait are endowed with everlasting livelihood and vividness to confront the viewers.

세대 Generation

전소정
Jun Sojung
1982

〈마지막 기쁨〉
2012
싱글 채널 비디오, HD, 컬러
2.1채널 사운드, 16:9
6분 58초
국립현대미술관 소장

Last Pleasure
Single channel video,
HD, color, 2.1channel sound, 16:9
6min 58sec
MMCA Collection



전소정¹⁹⁸²⁻은 타인의 삶 속에서 발견하는 다양한 이야기들을 연극적인 무대 설치, 퍼포먼스, 사진, 영상 등의 방식으로 제시한다. 전시 중인 작품은 ‘줄광대’, ‘기계자수사’, ‘피아노 조율사’, ‘해녀’의 이야기를 담은 단채널 영상들이다. 일반적으로 이들을 예술가라고 부르지는 않지만, 각자가 설정하고 있는 궁극적 이상을 향해 무섭게 몰입하는 모습은 예술가의 태도와 많이 닮아있다. 그들은 자신만의 ‘예술’을 통해 생계를 책임지며, 일상과 예술의 경계에 선 사람들이다. 우리 주변의 일상의 전문가들은 예술과 삶이 조화롭게 뒤섞인 이상적인 상태를 꿈꾸지만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 예술과 삶이 분리되는 경험을 하게 된다. 이러한 상태는 줄 위의 광대처럼 일상과 예술, 이상과 현실, 전문가와 대중의 양극을 아슬아슬하게 오가는 예술가들의 상황을 반영하기도 한다.

〈마지막 기쁨〉²⁰¹²은 카프카의 작품집 『단식 예술가』의 첫번째 편에 실린 『최초의 고통』의 반어적 표현에서 가져온 제목이다. 『최초의 고통』에서 공중그네 곡예사는 줄 위에서의 삶을 운명처럼 받아들이고 줄을 떠나 땅 위로 내려오는 것을 큰 고통으로 인식한다. 그의 삶은 필연적으로 고립과 고독이 수반되지만 그렇기에 비범한 예술가로 간주되기도 한다. 〈마지막 기쁨〉은 줄광대 김대균이 줄 위에서 경험하는 자신만의 세계, 예술가의 이상을 의미한다. 줄광대는 전통을 이어가는 사람이면서 현대에 속해있고, 줄 위에서의 이상적인 몸짓으로 하늘을 비상하지만 대중 앞에서 광대가 되어야 하는 땅과 줄 위의 공간적 거리로 상징되는 이상과 현실의 경계에 선 자이다.

Jun Sojung¹⁹⁸²⁻ produces theatrical stage installations, performances, photographs, and videos that examine other people's lives. Her single channel works tell stories of a tightrope walker, a machine embroiderer, a piano tuner, and a woman diver. Although these people aren't generally considered to be artists, each protagonist's dedication to their ideal goal closely resembles the attitude of an artist. The protagonists make a living out of their own forms of art, standing on the border between art and life. These everyday experts dream of an ideal state in which their pursuit of finesse also makes ends meet, but limitations of reality often separate their lives from art. Their lives are an ironic reflection of professional artists who also navigate the thin margins between life and art, ideal and real, and expertise and popularity like tightrope walkers.

The title of *Last Pleasure*²⁰¹² is coined by using the words opposite to

First Sorrow, the first story of Franz Kafka's *A Hunger Artist*. In *First Sorrow*, the trapeze artist who has accepted his fate to be high up on the trapeze understands the coming down to the ground off his trapeze as an unbearable torture. This inevitably means a life conveyed by isolation and solitude, yet it is because of this that he was esteemed as an exceptional artist. *Last Pleasure* intends to signify the world of one's own built on the rope the superlative condition of an artist. A tightrope walker is one who maintains the tradition and at the same time belongs to the contemporary period. He rises up to the sky by performing perfect movements on the rope, but he is also nothing but a silly clown before the audience. I have tried to depict him as one who is stepping on the boundary between the ideal and the real, that which is symbolized by the spatial distance between the ground and the rope suspended in the air.

마지막기쁨 Last Pleasure

전소정
Jun Sojung
1982

〈어느 미싱사의 일일〉
2012
싱글 채널 비디오, HD, 컬러
2.1채널 사운드, 16:9
8분 55초
국립현대미술관 소장

A Day of a Tailor
Single channel video,
HD, color, 2.1channel sound, 16:9
8min 55sec
MMCA Collection



전소정¹⁹⁸²⁻은 타인의 삶 속에서 발견하는 다양한 이야기들을 연극적인 무대 설치, 퍼포먼스, 사진, 영상 등의 방식으로 제시한다. 전시 중인 작품은 ‘줄광대’, ‘기계자수사’, ‘피아노 조율사’, ‘해녀’의 이야기를 담은 단채널 영상들이다. 일반적으로 이들을 예술가라고 부르지는 않지만, 각자가 설정하고 있는 궁극적 이상을 향해 무섭게 몰입하는 모습은 예술가의 태도와 많이 닮아있다. 그들은 자신만의 ‘예술’을 통해 생계를 책임지며, 일상과 예술의 경계에 선 사람들이다. 우리 주변의 일상의 전문가들은 예술과 삶이 조화롭게 뒤섞인 이상적인 상태를 꿈꾸지만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 예술과 삶이 분리되는 경험을 하게 된다. 이러한 상태는 줄 위의 광대처럼 일상과 예술, 이상과 현실, 전문가와 대중의 양극을 아슬아슬하게 오가는 예술가들의 상황을 반영하기도 한다.

〈어느 미싱사의 일일〉²⁰¹²은 40년 넘게 한 자리에서 가게를 지키고 있는 기계 자수사 전태춘의 모습을 따라간다. 주변의 변화에 관계없이 자신만의 호흡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에서 1930년대 조선의 예술가 구보 씨를 발견한다. 이 작품에서는 세 평 남짓한 공간에서 다양한 빛깔의 실타래로 성을 쌓고, 재봉틀 소음을 음악 삼아 자신만의 세계를 만들고 있는 그의 모습을 담아내고자 했다.

Jun Sojung¹⁹⁸²⁻ produces theatrical stage installations, performances, photographs, and videos that examine other people's lives. Her single channel works tell stories of a tightrope walker, a machine embroiderer, a piano tuner, and a woman diver. Although these people aren't generally considered to be artists, each protagonist's dedication to their ideal goal closely resembles the attitude of an artist. The protagonists make a living out of their own forms of art, standing on the border between art and life. These everyday experts dream of an ideal state in which their pursuit of finesse also makes ends meet, but limitations of reality often separate their lives from art. Their lives are an ironic reflection of professional artists who also navigate the thin margins between life and art, ideal and real, and expertise and popularity like tightrope walkers.

*A Day of a Tailor*²⁰¹² has some connection to the novel *A Day of Novelist Mr. Gubo*. The work deals with a machine embroidery designer who has run a store in the same place for over four decades. I saw Mr. Gubo as an artist in the life of the embroidery designer who has maintained the breathing rhythm of his own in spite of the changes taking place in his surroundings. In this work, skeins of thread of many different colors are piled up to form a castle in a space whose size is about twelve square yards, and the embroidery designer is creating there his own world as listening to the music that the sewing machine noises are composing.

어느 미싱사의 일일

A Day of a Tailor

전소정
Jun Sojung
1982

〈열 두개의 방〉
2014
싱글 채널 비디오, HD, 컬러
스테레오 사운드, 16:9
7분 35초
국립현대미술관 소장

The Twelve Rooms
Single channel video,
HD, color, stereo sound, 16:9
7min 35sec
MMCA Collection



전소정¹⁹⁸²⁻은 타인의 삶 속에서 발견하는 다양한 이야기들을 연극적인 무대 설치, 퍼포먼스, 사진, 영상 등의 방식으로 제시한다. 전시 중인 작품은 ‘줄광대’, ‘기계자수사’, ‘피아노 조율사’, ‘해녀’의 이야기를 담은 단채널 영상들이다. 일반적으로 이들을 예술가라고 부르지는 않지만, 각자가 설정하고 있는 궁극적 이상을 향해 무섭게 몰입하는 모습은 예술가의 태도와 많이 닮아있다. 그들은 자신만의 ‘예술’을 통해 생계를 책임지며, 일상과 예술의 경계에 선 사람들이다. 우리 주변의 일상의 전문가들은 예술과 삶이 조화롭게 뒤섞인 이상적인 상태를 꿈꾸지만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 예술과 삶이 분리되는 경험을 하게 된다. 이러한 상태는 줄 위의 광대처럼 일상과 예술, 이상과 현실, 전문가와 대중의 양극을 아슬아슬하게 오가는 예술가들의 상황을 반영하기도 한다.

〈열두 개의 방〉²⁰¹⁴은 피아노 조율사 이종렬의 조율 음을 따라 사유를 확장시킨다. 무한히 이어진 열두 음계의 방에서 조율사는 세상을 조율한다. 작품 안에서 조율사의 행위와 음들은 연주를 위한 부수적인 과정이 아니라 연주 그 자체로 전복되어 음악을 만들어내기 시작한다. 이 작품은 작곡가인 쇤베르크와 화가인 칸딘스키가 음악과 미술의 이상을 향해 공감대를 나누며 음과 색을 함께 고민하던 관계에서 영감을 받아 화면 속 이미지와 피아노 조율 음들이 병립되고 교차하는 모습으로 제시된다.

Jun Sojung¹⁹⁸²⁻ produces theatrical stage installations, performances, photographs, and videos that examine other people's lives. Her single channel works tell stories of a tightrope walker, a machine embroiderer, a piano tuner, and a woman diver. Although these people aren't generally considered to be artists, each protagonist's dedication to their ideal goal closely resembles the attitude of an artist. The protagonists make a living out of their own forms of art, standing on the border between art and life. These everyday experts dream of an ideal state in which their pursuit of finesse also makes ends meet, but limitations of reality often separate their lives from art. Their lives are an ironic reflection of professional artists who also navigate the thin margins between life and art, ideal and real, and expertise and popularity like tightrope walkers.

*The Twelve Rooms*²⁰¹⁴ tells a story of a piano tuner. In Jorge Luis Borges' *The Library of Babel*, a tuner tunes the world in twelve-tone rooms that are endlessly connected with one another along with a librarian seeking for an ultimate book of understanding the world. Acts and tones of the tuner in the work are not supplementary for a performance, but the performance itself starts to generate music as they are transferred to it. His acts symbolize an artist's attitude, desire and willingness toward the society. The work, in particular, was inspired by the relationship and conversations between musician Arnold Schonberg and artist Wassily Kandinsky on the ideals of music and art, and also on tones and colors. The screen suggests the juxtapositions and crossovers of images and tuned tones of the piano.

열 두개의 방 The Twelve Rooms

전소정
Jun Sojung
1982

〈보물섬〉
2014
싱글 채널 비디오, HD, 컬러
스테레오 사운드, 16:9
11분 9초
국립현대미술관 소장

Treasure Island
Single channel video,
HD, color, stereo sound, 16:9
11min 9sec
MMCA Collection



전소정¹⁹⁸²⁻은 타인의 삶 속에서 발견하는 다양한 이야기들을 연극적인 무대 설치, 퍼포먼스, 사진, 영상 등의 방식으로 제시한다. 전시 중인 작품은 ‘줄광대’, ‘기계자수사’, ‘피아노 조율사’, ‘해녀’의 이야기를 담은 단채널 영상들이다. 일반적으로 이들을 예술가라고 부르지는 않지만, 각자가 설정하고 있는 궁극적 이상을 향해 무섭게 몰입하는 모습은 예술가의 태도와 많이 닮아있다. 그들은 자신만의 ‘예술’을 통해 생계를 책임지며, 일상과 예술의 경계에 선 사람들이다. 우리 주변의 일상의 전문가들은 예술과 삶이 조화롭게 뒤섞인 이상적인 상태를 꿈꾸지만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 예술과 삶이 분리되는 경험을 하게 된다. 이러한 상태는 줄 위의 광대처럼 일상과 예술, 이상과 현실, 전문가와 대중의 양극을 아슬아슬하게 오가는 예술가들의 상황을 반영하기도 한다.

〈보물섬〉²⁰¹⁴은 제주해녀들의 노동요인 ‘이어도사나’의 이상향을 꿈꾸는 가락을 따라 바다로 향하는 제주 색달 해녀의 모습들로 시작된다. 저승길을 오간다고 표현할 만큼 해녀들의 물질은 고되기만 하다. 하지만 해녀들에게 바닷속은 평화와 위안을 주는 보물이 가득한 미지의 세계이기도 하다. 어느 진지한 예술가가 작품을 자신의 내부로부터 길어 올려 내듯이, 해녀들이 그토록 바라 마지않는 이어도는 죽어서야 가능한 환상 속에만 존재하는 섬이다. 작품 안에서 해녀는 삶과 죽음, 현실과 신화의 경계 위에서 이상향을 향해가는 강인한 존재로 드러난다

Jun Sojung¹⁹⁸²⁻ produces theatrical stage installations, performances, photographs, and videos that examine other people's lives. Her single channel works tell stories of a tightrope walker, a machine embroiderer, a piano tuner, and a woman diver. Although these people aren't generally considered to be artists, each protagonist's dedication to their ideal goal closely resembles the attitude of an artist. The protagonists make a living out of their own forms of art, standing on the border between art and life. These everyday experts dream of an ideal state in which their pursuit of finesse also makes ends meet, but limitations of reality often separate their lives from art. Their lives are an ironic reflection of professional artists who also navigate the thin margins between life and art, ideal and real, and expertise and popularity like tightrope walkers.

*Treasure Island*²⁰¹⁴ begins with images of haenyeo, or Korean female divers, moving to the sea along the tunes with hopes for their ideals in 'leodosana', their work song. Diving into the sea and harvesting various forms of seafood is said to be as exhausting as being on the road to Hades. Yet, the sea is a world of wonders with treasures giving them peace and comfort. Just like a serious artist is to scoop a work from deep inside his or her mind, leodo is an island desperately sought after by haenyeos that only exists in a fantasy that can be encountered only after death. They reveal their artistic attitude as strong beings moving toward an ideal world on the boundaries of life-death, reality-myth, men-women and outside-inside.

보물섬 Treasure Island

양정욱
Yang Junguk
1982

〈피곤은 언제나 꿈과 함께〉
2013
나무, 모터, 실, PVC
330×250×250cm
국립현대미술관 소장

Fatigue is always with a Dream
Wood, Motor, Thread, PVC
MMCA Collection

양정욱^{1982~}은 2013년 중앙미술대전에서 〈피곤은 언제나 꿈과 함께〉²⁰¹³로 우수상을 수상한 이후 독창적인 조각 설치 작품으로 주목 받고 있다. 양정욱은 일상에서 관찰한 다양한 인간 군상들의 소소한 사건들을 글과 드로잉으로 구체화 시킨 후에 이를 입체 형태의 움직임은 조각으로 구현해낸다. 플라스틱 페트병, 나무 조각 등의 재료들을 실로 엮고 작은 모터로 작동시키는 제작 방식은 첨단 미디어로 둘러싸인 관객들의 아날로그적 감수성을 자극한다. 인공감미료처럼 자극적이며, 화려한 물건으로 가득한 현대사회에서 관객들의 원초적인 감각과 따뜻한 감수성을 자극하는 양정욱의 작품은 유달리 돋보인다.

〈피곤은 언제나 꿈과 함께〉²⁰¹³은 작가가 야간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했을 때 목격했던 경비원 모습에서 영감을 받은 작품이다. 작가는 모두가 잠든 야심한 시각의 경비원 모습 그 속에서 고개를 까딱까딱 떨구며 졸고 있는 고단한 경비원의 모습, 그리고 그의 꿈에 대한 이야기를 움직이는 조각으로 재현했다. 위아래가 좁아지는 원통형 형태의 구조물 속에는 수 십 개의 나무 조각과 플라스틱 페트병들이 엮기설기 실로 연결되어 있고, 작은 모터로 구동된다. 작은 경비실의 열린 창으로 보이는 경비원이 머리를 떨구며 꾸벅꾸벅 조는 모습을 절묘하게 연상시키는 나무 조각과 페트병들의 움직임은 관객들의 주목을 끌어낸다. 구조물의 내부에서 비추는 빛의 효과는 공간 전체를 기하학적인 구조물의 그림자로 뭉개고 있다.



Yang Junguk^{1982~}, winner of the 2013 Joonang Fine Arts Prize, is recognized for his extraordinary sculptures and installations. Yang observes everyday activities of people around him, develops them into a form of writing or drawing, then materializes them into a three-dimensional kinetic sculpture. His method of sculpting—threading materials like recycled PET plastic bottles or wood pieces together and mobilizing them with a small motor—satisfies the thirst for an analog sentiment in the age of cutting-edge technology. The basic and warm qualities of Yang Junguk's works stand out in the contemporary world flooded with flamboyant and pungent objects.

Fatigue Always Comes with a Dream is a piece inspired by a security guard Yang used to observe while working the night shifts at a convenience store. The kinetic sculpture reinterprets the story of an exhausted security guard who would doze off and dream during the late night shifts. Dozens of wood pieces and plastic bottles are threaded onto the cylindrical structure with a narrowing top and bottom, powered by a small motor to make jolting movements. The movement of the wood pieces and the plastic bottles exquisitely resemble a security guard whose head is bobbing in sleep. The light protruding from the structure fills the entire room with shadows of the geometric structure.

피곤은 언제나 꿈과 함께
Fatigue is always with a Dream

차재민
Cha Jaemin
1986

〈미국과 크로마키〉
2013
싱글 채널 비디오, HD, 컬러
스테레오 사운드
15분 15초
국립현대미술관 소장

Chroma-key and Labyrinth
Single channel video,
HD, color, stereo sound
15min 15sec
MMCA Collection



차재민¹⁹⁸⁶⁻은 일상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사회적 현상에 주목하고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질문들을 드로잉과 영상, 설치 등 다양한 방식의 작업으로 제시한다. 〈미국과 크로마키〉는 작가가 ‘커뮤니티&도시 리서치’라는 프로젝트 활동을 할 당시 제작했던 작업이다. 당시 작가는 노동조합원들에게 비디오 촬영, 영상 편집 기술 등을 가르쳐주었고, 그때 만난 인물 중 한명이 영상 속에 등장하는 ‘케이블 설치 기사’였다.

〈미국과 크로마키〉²⁰¹³는 ‘노동’의 가치, 특히 ‘손노동’의 의미와 가치에 대해 다루고 있는 영상이다. 작가는 ‘한국사회에서 손노동은 두 가지로 해석 된다.’고 언급한다. 손노동을 재능, 장기, 장인 등으로 신성시하는 시각과 함께 손노동을 너무 당연시 하고 하찮은 것으로 취급하는 이중적인 잣대가 그것이다. 작품 속 케이블 기사는 전형적인 손노동자이다. 그의 노동을 통해 사람들은 인터넷에 접속하고 무한한 가상의 영역과 연결되어 소통한다. 한국은 빠른 인터넷을 자랑하며, 케이블망이 거미줄처럼 연결되어 있다. 작가는 거대한 케이블망을 한번들어가면 빠져나올 수 없는 신화 속 ‘미궁(迷宮)’에 비유하며, 노동자의 손을 강조하기 위해 배경을 지워버리는 ‘크로마키’ 기법을 이용하고 있다.



Cha Jaemin¹⁹⁸⁶⁻ inspects daily social phenomena, questioning fundamental social issues through various media including drawings, videos, and installations. *Chroma-key and Labyrinth* was produced while Cha was working on a research project on community and city. Cha taught video filming and editing techniques to union laborers at the time, one of whom was the “cable guy” featured in this video.

*Chroma-key and Labyrinth*²⁰¹³ is a single-channel video exploring the value of labor and manual labor in particular. Cha Jaemin explains that “In Korean society, manual labor is interpreted in two conflicting ways,” that there is a double standard of taking labor for granted and treating it as trivial while also

apotheosizing it as a gift, talent, or mastery. The cable man in the video has the hands of a typical laborer. Through his labor, people are able to connect online and communicate in an infinite virtual realm. Korea takes pride in fast internet access with cable networks spread throughout the country like a cobweb. Cha compares this cable network to a mythical labyrinth one can’t escape upon entrance, using the chroma-key technique to erase the background and emphasize the worker’s hands.

미국과 크로마키 Chroma-key and Labyrinth

임흥순

Im Heungsoon

1969

〈위로공단〉

2014/2015

싱글 채널 비디오, HD, 컬러
사운드, 95분

국립현대미술관 소장

Factory Complex

Single channel video,

HD, color, sound

95min

MMCA Collection

〈까마귀〉

2015

잉크젯 프린트, 디아섹
41×100cm

국립현대미술관 소장

Crow

Inkjet print, diasec

MMCA Collection



임흥순^{1969~}은 미술작가이자 영화감독이다. 노동자로 살아 온 가족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으로 정치, 사회, 국가, 자본의 구조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각자의 삶을 이어가는 우리 이웃들의 이야기와 구조적인 시스템의 문제에 관심을 가져왔다. 그는 현대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와 이웃에 대한 관심을 사진, 설치미술, 공공미술, 영화 등 다양한 시각매체를 통해 담아내고 있다.

〈위로공단〉은 2015년 베니스비엔날레에서 은사자상을 수상하며 작가이자 영화감독으로서 임흥순의 존재감을 드러낸 대표작이다. 〈위로공단〉은 과거와 현재, 인식과 기억, 현실과 무의식, 다큐멘터리와 퍼포먼스 등 다양한 범주를 넘나들며 새로운 역사쓰기를 시도하고 있다. 한국영화로는 처음으로 베니스비엔날레 국제전에 작품이 소개된 만큼 미술의 경계를 확장시켰을 뿐만 아니라 한국 영화사에서도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작품이다. 〈위로공단〉은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여성들의 이야기를 이념의 굴레 없이 풀어내 감동을 안긴다.

작가는 “어머님, 여동생과 같이 가족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며 살아오신 많은 여성노동자들에 대한 헌사의 영화”라고 소개하며 “40년 넘게 봉제공장 ‘시다’ 생활을 해 오신 어머니와 백화점 의류매장, 냉동식품 매장에서 일을 해 온 여동생의 삶으로부터 영감 받은 작품”이라고 밝힌 바 있다. 〈위로공단〉은 1970~80년대 구로공단 ‘여공들’의 이야기부터 승무원, 텔레마케터 등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수많은 여성 노동자들에 대한 이야기다. 험난한 세월을 견뎌온 여인들의 기억과 역사적인 증언들은 다양한 실험적인 이미지들과 조합되어 묵직한 감동으로 다가온다.

Im Heungsoon^{1969~} is an artist and a filmmaker. Beginning with stories on families who have lived as laborers, IM has paid attention to people who live their individual lives in close connection to the political, social, national, and capitalist structures and issu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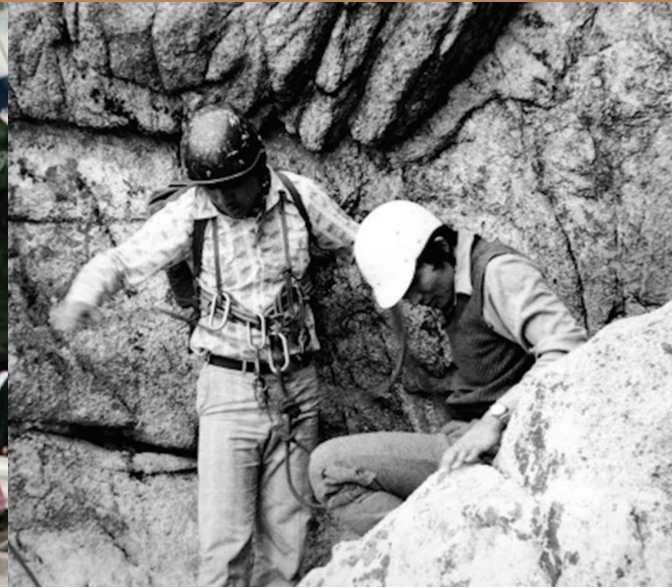
He alludes to specific problems in the modern societal structure through various media works including photos, installations, public art, and films that observe people around him.

Im Heungsoon proved his potential as a filmmaker through *Factory Complex*, a work that won him the Silver Lion at the 2015 Venice Biennale. *Factory Complex* attempts to rewrite history from a different perspective while alternating back and forth between the past and the present, notion and memory, the conscious and the subconscious, and documentation and performance. As the first Korean film introduced at the Venice Biennale, this piece has not only expanded the horizons of Korean art, but also made a significant mark on Korean film history. *Factory Complex* unravels stories of female laborers working in poor

conditions without fixating on a particular ideology. Im Heungsoon describes the film as “a tribute to the many female laborers who have sacrificed themselves for their families including (his) mother and sister,” stating that the piece was inspired by his mother who has worked at a sewing factory for over four decades, and his sister who has worked at a clothing store and a frozen food section at a department store. *Factory Complex* speaks not only for the female factory workers of the 1970~80s, but also for flight attendants, telemarketers, and countless other female workers of today. The memories and historical testimonies of the women who have endured turbulent times, combined with Im’s unique experimental images, conjure heavy emotions in the viewers.

고재욱
Koh Jaewook
1983

〈정상에 선 사나이〉
2018
싱글 채널 비디오, 사운드, 15분
작가소장
The Man on Top
Single channel video, sound
15min
Courtesy of the artist



고재욱¹⁹⁸³⁻은 현대인의 일상에서 드러나는 다양한 이야기들을 주목한 관객 참여형 공간 설치 프로젝트를 선보여왔다.

〈정상에 선 사나이〉는 과거 연초제조창이었던 국립현대미술관 청주의 역사를 조망하는 영상작품이다. 작가는 실제 연초제조창에 근무 하였던 분들이 이야기하는 당시의 이야기와, 그분들과 얽혀 있는 다양한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편집한 영상을 선보인다. 연초제조창에서 근무 하였던 분들은 당시로서는 높은 수준의 봉급을 받고 일을 하면서, 한가정을 책임졌고, 청주지역 경제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자연스럽게 연초제조창 앞에는 북부 시장이 형성되면서 지역 경제가 활기를 띄게 되었다.

시장경제가 활성화되면서 자연스럽게 시장을 중심으로 예술인들이 모이게 되었다. 영상 속에는 한국인 최초 세계에서 8번째로 에베레스트를 등반한 산악인 고상돈이 등장한다. 그는 연초제조창에 근무하면서 등산 활동을 이어갔다. 고상돈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연초제조창, 청주 공예비엔날레, 직지 그리고 한국화 대가인 윤보 김기창과 청계 정종여에 이르는 다양한 이야기로 이어진다. 본 작품은 국립현대미술관 커미션으로 제작되었다.

Koh Jaewook¹⁹⁸³⁻ has presented interactive installations that underline various everyday experiences of the modern people.

The Man on Top is a video work revisiting the history of the MMCA Cheongju, which used to be a tobacco manufacturing plant. Koh records and edits the multifarious stories of the times told by former employees of the plant. The workers at the time, who earned a relatively high salary, managed both to take care of their families and to serve a key role in the economic growth of Cheongju. As the tobacco pla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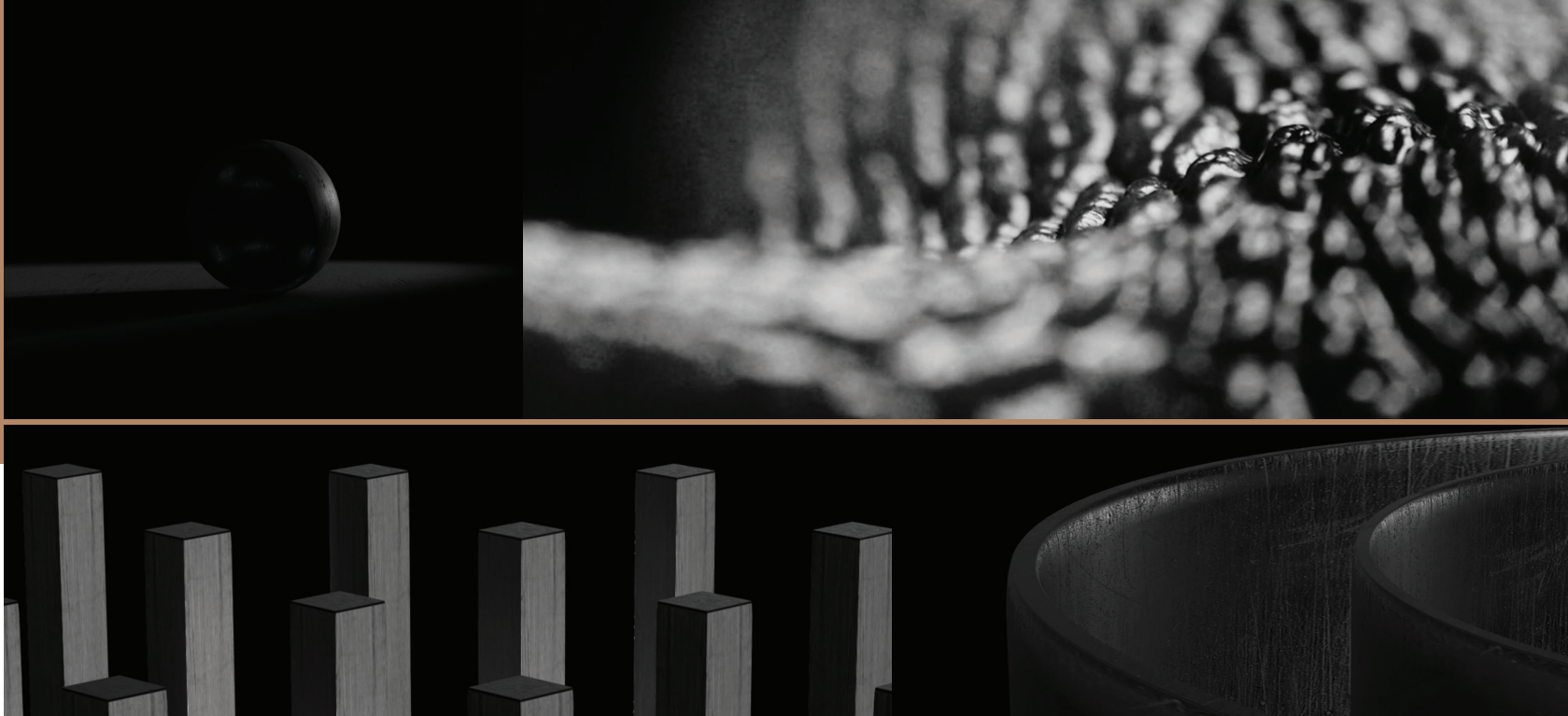
thrived, a market formed in front of the building and the local economy was vitalized. As the market economy grew, artists gathered one by one and settled around the market area. *The Man on Top* features Ko Sang-don, the first Korean and the eighth mountaineer to climb Mount Everest, who used work at the tobacco plant while climbing mountains. The story of Ko Sang-don leads into anecdotes about the tobacco plant, the *Cheongju Craft Biennale*, the Buddhist document *Jikji*, and masters of Korean painting Kim Kichang and Chung Chong-yuo. This work was commissioned by the MMCA.

정상에 선 사나이 The Man on Top

김다움
Kim Daum
1983

〈파수꾼들〉
2018
싱글 채널 비디오,
5 채널 사운드
7분
작가소장

Watchers
Single channel video,
5 Channel sound
7min
Courtesy of the artist



김다움^{1983~}은 사람과 사람, 사람과 사물, 사물과 사물의 사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접점^{interface}에 주목하는 영상, 설치 작업을 보여주고 있다.

〈파수꾼들〉은 청주 시민들의 기억과 향수가 녹아있는 연초제조창이라는 고유의 역사를 지닌 건물을 보존하고, 리노베이션을 통해 미술관으로 재탄생되는 공간의 건축적 특징에 주목한 영상 작업이다. 작가는 국립현대미술관 청주관 공사현장을 답사 한후 건물이 어떻게 만들어졌으며, 어떠한 과정을 통해 기존 건축을 보존하며 리노베이션을 하는지에 대해 조사했다. 작가는 특히 오래된 콘크리트를 보존하고 그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이번 공사에 시행된 ‘콘크리트 중성화’의 과정이 흥미를 가지게 되었고, ‘콘크리트 중성화’ 과정과 아카이브 사진들과 건축도면 등의 자료를 이용하여 작품을 제작하였다. 김다움은 이 작품을 통해

관객들이 국립현대미술관 청주관의 건축 재생의 과정의 가치와, 수장고와 작품 보존과 복원의 기능을 수행하며, 다양한 작품들과 전시들을 통해 고유의 시간성을 가지 미술관이라는 장소의 가능성을 싱글 채널 영상과 5채널 사운드를 통한 공감각적 경험으로 엮어내고 있다. 본 작품은 국립현대미술관 커미션으로 제작되었다.

Video and installation works of Kim Daum^{1983~} illuminate various interfaces formed between people, between people and objects, and between objects.

Watchers focuses on a historical building, a former tobacco manufacturing plant that remains in the memories of many Cheongju citizens. The single-channel video highlights the unique architectural features as it elaborates on the renovation efforts to renew this building into a museum without erasing its inherent history. Kim Daum has visited the renovation site and studied the building as it turned into the MMCA Cheongju, noting how the original architecture was preserved throughout the course of the

project. Kim was particularly intrigued by concrete carbonation implemented in the renovation to preserve and extend the lifespan of the existing concrete, and he decided to incorporate into his work the archive photographs and the blueprints used in the carbonation process. The single-channel video and 5 channel sound provide a synesthetic experience of the MMCA Cheongju while recounting the museum's renovation strategies and their meaning. The work also explores the museum's potential as a collector, preserver, and restorer of artworks, and as a space of exhibition with a unique temporality. This work was commissioned by the MMCA.

파수꾼들 Watchers



정교한 극사실주의 인체 조각 작품으로 잘 알려진 최수양^{1975~}은 평범한 인물들의 삶과 그들을 둘러싼 사회적 환경에 주목한다. 그는 우리 사회에 내재한 여러 힘들의 역학 관계를 드러내고 그 역학 관계 속에서 휩쓸리고 있는 개인들의 모습을 다양하게 형상화한다. 실제 크기보다 축소된 미니어처 인물들은 놀랍도록 사실적인 형태를 띠고 있으나, 절단된 신체 일부를 연결하거나, 서로의 신체가 인위적으로 결합되는 등의 기괴하며, 초현실적인 형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익명의 인물들로부터 떨어져 나온 손목 덩어리가 거대하게 펼쳐진 날개 형상으로 모여있는 *The Wing*²⁰⁰⁸은 최수양 조각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있는 대표작 중 하나이다. 성별과 이름을 알 수 없는 다수의 사람들이 서로 협력하여, 하나의 거대한 이상을 이루듯 서로의 손목을 촘촘하게 붙잡고 있는 수많은 손들은 이제 막 날아오르려는 듯한 커다란 날개로 변신하였다. 흔히 사회, 정치적 측면에서는 하나의 전체로 뭉쳐진 이들의 희생을 숭고하다거나, 거룩하다고 칭송한다. 하지만 익명의 개인들의 측면에서는 비록 그가 원했던 혹은 그렇지 않았던 간에 그 희생은 잔인할 수 있다. 개인의 본능과 욕망은 흔히 전체라는 허상의 폭력 속에 숨겨지고, 희생되기 때문이다.

Known for detailed Hyperrealist figure sculptures, Choi Xooang^{1975~} observes everyday people and their social environments. He explores the dynamics of various social powers through sculptures portraying individuals entangled in the dynamics. Choi produces incredibly life-like miniature figures, often reattaching severed body parts or artificially consolidating different bodies to yield a grotesque and uncanny visual.

*The Wing*²⁰⁰⁸, comprised of hands detached from anonymous people, is a representative work of Choi Xooang's. The hands of several people whose gender and name are unknown cooperate with one another, tightly holding onto one another's wrists, as if to constitute one big idea, forming a giant wing ready to fly up to the heavens. Socially and politically, sacrifices of those united as a whole are often praised as noble or sacred. Nevertheless, from the anonymous individuals' point of view, sacrifice, whether voluntary or not, can be cruel for individual needs, and desires are easily suppressed or denied under the illusion of whole.

The Wing

정교한 극사실주의 인체 조각 작품으로 잘 알려진 최수양^{1975~}은 평범한 인물들의 삶과 그들을 둘러싼 사회적 환경에 주목한다. 그는 우리 사회에 내재한 여러 힘들의 역학 관계를 드러내고 그 역학 관계 속에서 휩쓸리고 있는 개인들의 모습을 다양하게 형상화한다. 실제 크기보다 축소된 미니어처 인물들은 놀랍도록 사실적인 형태를 띠고 있으나, 절단된 신체 일부를 연결하거나, 서로의 신체가 인위적으로 결합되는 등의 기괴하며, 초현실적인 형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The Hero*²⁰⁰⁹는 작가의 아버지를 소재로 한 작품이다. 작가는 '해병대'를 제대하고 공무원으로 30년을 재직하신 아버지의 모습을 1960~70년대의 정치적 폭압과, 압축 성장의 시기를 거친 전형적인 인물이라고 생각하였다. 이런 아버지의 모습을 섬세한 나체 조각으로 재현함으로써 당시 시대상을 응축한 지표로 보이게 한 것이다. 무기력하게 발가벗겨져 드러난 탄력을 잃은 몸의 근육은 흘러간 세월의 무상함을 느끼게 하지만, 앙다문 입매는 여전히 무언가를 원하는 듯한 고집스런 집념이 엿보이기도 한다. 작가는 조각상을 받치고 있는 좌대를 통해 기성세대의 형식적인 권위의 욕구를 드러내는 동시에, 무방비 상태의 노쇠한 육체를 통해 무기력감과 회한의 감정을 복합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Known for detailed Hyperrealist figure sculptures, Choi Xooang^{1975~} observes everyday people and their social environments. He explores the dynamics of various social powers through sculptures portraying individuals entangled in the dynamics. Choi produces incredibly life-like miniature figures, often reattaching severed body parts or artificially consolidating different bodies to yield a grotesque and uncanny visual.

*The Hero*²⁰⁰⁹ is a sculpture of Choi Xooang's father, a navy man who served in a public office for 30 years. Choi thought of him as a classic example of someone who has lived through the 1960~70s Korea, a period of political oppression and compressed growth. The detailed nude sculpture of his father is a complex symbol of the times. The helplessly stripped body and the weakened muscles underneath the sagging skin attest to the transiency of the time, yet the tightly clenched jaws project a hint of stubbornness or a sense of demand. The pedestal supporting the hero's figure allude to the generation's need for formal authority, but the emaciated and defenseless body speaks for a complex mixture of incompetence and remorse.



김을
Kim Eull
1954

〈갤럭시〉
2003~2016
종이에 드로잉, 각종 오브제
가변 크기
국립현대미술관 소장

Galaxy
Drawing on paper, objects
Variable size
MMCA Collection



2016년 올해의 작가상 Korea Artist Prize 2016 선정
작가이자 2018년 이종섭 미술상 수상자인
김을^{1954~}은 왕성한 드로잉 작업으로
잘 알려져있다. 김을의 드로잉은 협소한 정의와
형식의 한계를 뛰어 넘어 회화, 조각, 설치 등
다양한 경계를 아우르는 넓은 스펙트럼을
지니고 있다. 그의 드로잉은 자신의 온 몸으로
대면하고 있는 거대한 세상에 대한 민감한
반응의 결과물이다. 드로잉은 김을의 혈관을
타고 흐르는 혈류(血流)이며 그의 육체를
움직이는 연료와도 같다. 그 에너지가 김을의
정신을 관통하고 그의 손끝을 타고 세상으로
흘러내린다. 정신의 거름망으로 걸러낸 세상의
모든 이야기와 자유로운 상상은 김을을
둘러싸고 있는 ‘작은 우주’가 된다.

광활한 우주의 심연과도 같은 깊은 어둠을
배경으로 1,200여점의 드로잉들이 작은 ‘별’
처럼 모여 거대한 은하계의 형태를 이루고 있다.
〈갤럭시〉^{2003~2016}를 구성하는 별들은
2003년부터 2016년까지 작가 김을이 세상과
대면하면서 창조해 온 크고 작은 총돌의 흔적이
라고 할 수 있다. 각각의 빛나는 드로잉들은
김을의 기억과 경험, 육체와 정신의 작동
원리를 해석할 수 있는 세밀한 ‘도해(圖解)’이자
그의 전모를 파악할 수 있는 거대한 ‘자화상’
이라고 할 수 있다. 김을의 작품을 통해 관객들도
자신만의 작은 우주를 상상하게 될 것이다.

Kim Eull^{1954~}, winner of the 2016 Korea
Artist Prize and the 2018 Lee Joong Sup
Award, is known for his robust drawing
works. KIM's drawings transcend
the narrow definition and limitations of
form, testing the boundaries of various
media including painting, sculpture,
and installation. Kim's drawings are
his sensitive reaction to the world, the
colossal world he is colliding into with
his every inch of his being.
Kim's drawings are like blood running
through his veins, fuel that drives him to
move. The energy travels through his
mind and flows out into the world
through his fingertips. His worldly
stories and free imaginations are filtered
through his creativity to form a “small
cosmos” around him.

Against the black backdrop reminiscent
of the vast darkness of the space,
some 1,200 drawings are gathered like
a swarm of little stars, configuring
a giant galaxy. The stars that make up
Galaxy^{2003~2016} can be seen as marks left
by big and small collisions of Kim Eull's
confrontation with the world during
the production period from 2003 to
2016. Each of the brightly shining
drawings is a detailed blueprint into
Kim's memories, experiences,
and thought processes, and the finished
piece is a giant self-portrait filled with
every detail of his identity. Looking at
Galaxy, the audience is inclined to
imagine their own small galaxies
as well.

갤럭시 Galaxy

관람시간

매주 월요일 휴관

화, 수, 목, 금, 토, 일: 오전 10시 - 오후 6시

마지막 주 수요일: 오전 10시 - 오후 9시

입장료

무료

Opening Hours

Tue, Wed, Thu, Fri, Sat, Sun 10:00 - 18:00

Admission Fee

Free

국립현대미술관 청주

28501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상당로 314 (내덕동)

043 261 1400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Cheongju

13829, 314, Sangdang-ro, Cheongwon-gu, Cheongju-si,

Chungcheongbuk-do, Republic of Korea

+82 43 261 1400

www.mmca.go.kr

twitter.com/mmcaKorea

[instagram.com/mmcaKorea](https://www.instagram.com/mmcaKorea)

[facebook.com/mmcaKorea](https://www.facebook.com/mmcaKorea)

[youtube.com/mmcaKorea](https://www.youtube.com/mmcaKorea)

tv.naver.com/mmca



국립현대미술관 청주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Cheongju